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낡은 세계의 문으로 나가서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너희에게 해방과 삶 속의 해방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질문: 지금 현재 최선의 카르마는 무엇이나?

대답: 최선의 카르마는 너희의 생각, 말, 행동으로 장님을 위한 지팡이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해방된 삶의 나라로 가는 길뿐 아니라 집(해방)으로 가는 길도 역시 찾을 수 있으려면 어떤 말이 쓰여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너희 자녀들은 지식의 대양을 되새겨서, 여기서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 준다는 것을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움 산티. 너희는 마술사의 램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알라딘의 램프도 역시 기억되어왔다. 알라딘의 등잔 또는 마법사의 등잔은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베쿤트, 천국, 행복의 나라를 보여준다. 램프는 불빛이라고 불린다. 지금 현재는 어둠이 있다. 모든 이에게 빛을 보여주려고 너희 자녀들은 지금 전시회와 박람회를 열고 있다.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돈을 쓰면서 고심하고 있다. 너희들은 묻기를, 바바, 저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다. 봄베이는 “인도의 관문”이라고 불린다. 기선들은 먼저 봄베이에 정박한다. 델리에도 역시 “인도의 문”이 있다. 여기 있는 이것은 해방과 삶 속의 해방으로 가는 우리들의 관문이다. 문이 두 개 있다. 언제나 두 개의 문, 즉 입구와 출구가 있다. 하나는 들어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나오는 곳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은 새 세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낡은 세계로 가고, 그 다음 우리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집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들만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그를 찾았고, 그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 바바가 해방과 삶 속의 해방,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이라고 써야 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되새겨야 한다. 무엇이 해방이며 무엇이 삶 속의 해방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이가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 부, 번영과 더불어 평화도 역시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오직 황금시대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산티담과 수크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써야 하고, 아니면 “순수, 평화, 번영에 이르는 문”이라고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은 좋다. 이 세 가지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했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정화자인 신, 아버지는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낡은 세계에서 나가서 집에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순수, 평화, 번영으로 가는 문이다. 바바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든다. 사실 개관을 행하는 분은 시브 바바지만, 그는 브라민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 세상에도 개관식 행사가 많다. 일부는 병원의, 어떤 것들은 대학교의 개관식 행사인데, 그러나 이 개관식은 단 한 번, 오직 지금 이때에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일부 어떤 자녀들은, “브라마 바바가 오셔서 이것을 개관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편지에 쓴다. “저희는 밥과 다다 두 분을 함께 초대해야 합니다”라고.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는 바깥 어디에도 나가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가서 그것을 개관하는 것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개관식은 아무라도 할 수 있다. 프라자피타 브라마 쿠마르들과 쿠마리들, 이라고 신문들에 실릴 것이다. 이 이름은 좋다. 프라자피타란 모든 이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도 못지 않다. 아버지는 행사 의식을 직접 수행한다. 그는 카란카라만하르다. 너희가 천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너희의 지각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척 노력하며 슈리마트를 따라야 한다. 지금 현재, 너희의 생각, 말, 행위들을 통한 최선의 카르마는, 장님을 위한 지팡이가 되는 것 단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오 신이여! 장님에게 지팡이를 주소서!”라고까지 말한다. 모든 이가 다 장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와서 그 지팡이가 된다. 그는 지식의 제 3안을 주고, 그것을 통해 너희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천국에 간다. 그것은 등수대로다. 이것은 매우 규모가 큰 병원 겸 대학교다.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 정화자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미 설명되었다. 아버지와 너희가 행복의 나라로 가리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지옥이며, 천국이라고는 불릴 수 없다. 천국에는 종교가 단 하나뿐이다. 바라트가 천국이던 때, 거기에는 다른 종교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도 역시 만마나바브가 된다는 뜻이다. 천국에서 우리들은 세계 전체의 주인들이었다. 너희는 심지어 이것마저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 너희 지각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복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마야도 못지 않다. 그런 아버지에게 속한 후에도 너희는 그 행복에 머물지 못한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숨이 막힌다. 마야는 거둬 너희의 목을 조른다. 그녀는 너희가 시브 바바를 기억하는 일을 잊게 만든다. 그러면 너희는 “저는 기억하며 머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너희가 지식의 대양 속으로 깊이 잠수하게 만드

는 반면, 마야는 너희가 독의 대양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일부 어떤 이들은 엄청난 행복 속에서 허둥댄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시브 바바를 기억해라. 그럼에도 마야는 그들이 잊게 만든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심지어 아버지를 알지도 못한다. 오직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만이 슬픔의 제거자, 행복의 공여자다. 그는 우리들의 슬픔을 모두 끝내주는 분이다. 사람들은 몸을 씻으러 갠지스 강에 가는데, 그들은 갠지스 강을 정화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황금시대에는 갠지스 강이 너희의 슬픔을 없애주거나 너희의 죄를 지워준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인들과 성자들 등은 모두 강에 가서 독 위에 앉는다. 그들은 왜 대양의 해변에는 앉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은 지금 대양의 해변에 앉아 있다. 많은 자녀들이 대양인 분에게 온다. 크고 작은 이 강들이 대양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해된다. “브라마푸트라”와 “신드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이 그것들에 붙여진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자녀들아, 너희의 생각, 말, 행동들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결코 화내지 마라. 먼저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것들이 세 개의 창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라. 침묵하며 머물러 있어라. 뭔가가 말속에 나오면, 그것은 또 너희의 행위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화가 처음에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그것은 세 개의 창문 모두에서 나온다. 그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슬픔을 끼치고, 계속 싸운다. 너희는 어느 누구에게도 슬픔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침묵하며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좋다. 아버지가 와서 천국, 즉,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연다. 그는 오직 너희 자녀들에게만 이 말을 들려준다. 그는 너희 자녀들에게 남들에게도 들려주라고 이른다. 순수, 평화, 번영은 오직 천국에만 존재한다. 어떻게 해야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마하바라트 전쟁도 역시 문들을 연다. 무슨 이름을 지어줘야 할지에 대해서 바바는 계속 지식의 대양을 휘젓는다. 아침에 이 지식의 대양을 휘저음으로써 너희는 버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 좋은 의견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바바가 이르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어떤 이름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 지식의 대양을 휘저어라. 이것에 대해 생각해라. 너희들 중 일부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불순한 사람을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곧 그를 지옥의 주민에서 천국의 주민으로 바꾼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이해한다. 신인들은 순수하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들 앞에 머리 숙여 절한다. 비록 지금 너희가 누군가에게 절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만, 너희는 계속 재치 있게 행동해야 한다. 현인들은 자기들이 고귀하고 순수하다고 여기며, 나머지 모든 이가 다 불순하고 저급하다고 여긴다. 비록 너희가 최고로 고귀하다는 것을 알아도, 누군가 너희에게 합장하고 인사를 하면 그럴 때는 너희도 그에게 답례를 해야 한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인사할 때는 너희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에 답해야 한다. 재치 있게 그들을 대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그들을 붙들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풍부한 요령이 필요하다. 죽음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서 있을 때는 그들 모두 신을 기억한다. 오늘날에는 많은 일들이 계속 우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차츰 불길이 번져나갈 것이다. 불은 외국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점차 세계 전체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에는 오직 너희 자녀들만 남을 것이다. 너희 영혼들이 정화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세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세계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노트에 기록한다. 너희들은 그곳을 통치한다. 알라딘의 램프도 역시 유명하다. 그런 것을 필기함으로써 너희는 끝없는 보물들을 받는다. 이것은 정확하다. 신호해 줌으로써 알라 알라딘(Allah Aladdin)이 즉시 너희들에게 비전을 준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그저 단순히 시브 바바를 기억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 모두 비전들을 볼 것이다. 신봉자들은 열렬히 신봉을 행함으로써 비전들을 받는다. 여기서 너희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비전들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바와 천국을 아주 많이 기억할 수 있다. 너희들은 계속 거듭거듭 그것을 볼 것이다. 바바와 이 지식을 기억하며 바빠 지내는 총명한 자들은 마지막에 그런 장면들과 광경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는 매우 높다.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이모네 집에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요한다. 기억이 주된 것이다. 바바가 신성한 비전을 주는 공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스스로에게 신성한 비전을 주는 공여자가 될 것이다. 신봉의 길에서 비전을 받는 것은 집중적으로 신을 기억한 후의 일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노력을 통해서 신성한 비전의 공여자가 되는 셈이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바빠 지냄으로써 너희는 매우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비전들도 역시 볼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계 전체를 잊을 수 있고, 만마나바브를 의식하며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요가의 힘으로 몸을 떠날 것이다. 신봉에는 노력이 있다. 이것에도 역시 노력이 요구된다. 바바는 계속해서 노력하는 최상급의 방법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 여김으로써 몸이라는 의식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아버지와 같아진 것과 같을 터이며, 너희는 계속 비전들을 볼 것이다. 행복도 역시 많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결과가 기억되어 왔다. 너희들은 또 제 이름이나 형태에서도 분리되어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남들의 이름과 모습을 기억한다면, 너희의 상태가 어찌 되겠느냐? 지식은 아주 쉽다. 바라트의 고대 요가가 기억되어 왔으며, 그것에는 마술이 들어있다. 브람 원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도 역시 이렇게 몸을 떠난다는 것을 바바가 이미 설명해주었다. 그들은 “나는 영혼이며, 지고의 영혼에 합쳐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합쳐질 수 없다. 그들은 브람 원소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들이 그저 앉아 있다가 간단하게 몸을 떠나는 것을 바바는 본 적이 있다. 분위기는 매우 평온하고 완전한 정적이 흐른다. 지식의 길에 있는 자들, 평화로이 머물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완전한 정적을 경험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자녀들 중 일부는 아직도 아기들이어서 자꾸자꾸 계속 넘어진다. 이것에는 은밀한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신봉의 길에 있는 자들의 노력은 눈에 보인다. 그들은 염주의 구슬을 돌린다.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앉아서 신봉을 행하는 반면, 여기서 너희는 걷고 움직여 돌아다니는 동안에 기억하며 머문다. 너희가 왕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다. 너희들은 요가로 각자의 모든 카르마의 잔고를 청산해야 한다. 그것은 지식으로는 정리될 수 없다. 빛은 기억으로 정리될 것이다. 카르마의 고통은 기억으로 청산될 것이다. 이것은 은밀하다. 바바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은밀하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생각, 말, 행위로 결코 화내지 마라. 이 세 창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라. 필요없이 말하지 마라. 서로 슬픔을 끼치지 마라.
2. 지식과 요가에 도취되어서 지내며 마지막에 장면들과 광경들을 보아라. 너희 자신의 이름과 모습, 그리고 남들의 이름과 모습을 잊음으로써 몸에 대한 의식을 끝내고, 영혼이라는 인식 속에 머물러 있어라.

축 복: 부주의라는 잠을 버린, 잠의 정복자가 되고 지구의 통치자가 되어라.

비전을 허락하는 형상이 되어 신봉자들에게 비전을 주고, 지구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잠의 정복자가 되어라. 멸망의 때를 잊으면 그때 너희는 부주의함의 잠 속에 빠져든다. 신봉자들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행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목마른 영혼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결코 부주의함의 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끊임없이 불이 켜진 등불이 되어 부주의라는 잠을 버리고 비전을 허락하는 형상이 되어라.

슬로건: 너희의 몸, 마음, 부, 생각, 말, 행위로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의 과업에 협조해라, 그러면 너희가 쉬운 요기가 될 것이다.

*** 움 산티 O M S H A N T I ***